

새정치나 무소속이나... 내년 총선 풍향계

오늘 재보선 ... 전남 3곳서 11명 도전장

합평 광역의원, 목포·신안 기초의원 선출

10·28 재·보궐선거 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경남 고성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1곳을 비롯한 전남 합평(제2선거구) 등 광역의원 선거구 9곳, 목포(목포시 라선선거구)와 신안(신안군 나선선거구)을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구 13곳 등 모두 23곳(부산 해운대구 무투표 당선지역 제외)에서 치러진다.

전남에선 광역의원(1곳)과 기초의원(2곳) 등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는 모두 11명이다.

투표소에 갈 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공관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선거인데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진행돼 민심을 파악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김부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재보선 연승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패 고리를 끊고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던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된 뒤 열리는 첫 선거로서 올해 4월1일~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합평 제2선거구=합평 제2선거구엔 새정치민주연합 정정희, 무소속 설명수, 이재인 후보가 당선에 대해 표발을 누비고 있다.

새정치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는 새정치 담양·합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은병원 경영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 후보는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뒤 교회 장로로 활동중이며, 이 후보는 새정치 부대변인과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국민통합위원회 운영단장을 역임했다.

◇목포 라선선거구=이 선거구엔 새정치가 무공천한 가운데 무소속 이재용·서조원·천정우·송지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 회장과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통합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후보는 제8대 목포시의원과 여행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천 후보는 만호동방위협의회 위원을 맡은 뒤 동목포청년회의소특우회원을 하고 있으며, 송 후보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목

■ 합평 제2선거구(광역의원)



정정희(2·49·새) 현) 은병원 경영원장



설명수(4·66·무) 현) 구산제일교회 장로



이재인(5·54·무) 전) 새정치 부대변인

〈범례〉
이름
기호·나이·소속
경력

■ 신안 나선선거구(기초의원)



김동근(2·62·새) 현) 무안신안 부위원장



전남주(4·50·무) 현) 임해 생활체육회장



박인석(5·58·무) 전) 압해농협조합장



최승환(6·53·무) 현) 남선창호산업대표

■ 목포 라 선거구(기초의원)



이재용(4·62·무) 현) 바르게살기 목포회장



서조원(5·66·무) 전) 목포시의원



천정우(6·50·무) 현) 동목포 JC특우회원



송지원(7·47·무) 전) 해양공단목포부소장

포부소과 학원장을 지냈다.

◇신안 나선선거구=이 선거구엔 새정치 김동근 후보와 무소속 전남주·박인석·최승환 후보가 군의회 임성을 위해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 신안군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새정치 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신안 해양과 운영위원장을 지낸 전

후보는 신안 압해를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압해농협 조합장을 지낸 뒤 전국새우양식협회 회장(직무대행)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 후보는 어린이집 대표이사과 남선창호산업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허성관 원장 광주시 확대간부회의 불참 이유는?

임명 후 첫 공식 자리

유감 표명 윤시장 의식한 듯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허 원장이 27일 열린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허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확대간부회의는 분청 기획관 이상 실국장,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부구청장까지 모두 60명이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 때문에 허 원장 임명 후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 확대회의에는 허 원장 대신 김현철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취임식을 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

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식을 열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기관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취임식’은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허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된 만큼 법적인 분이 유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확대회의의 불참은 임명 강행에 대한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정현 시장이 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언급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윤 시장은 전남 기자실을 찾아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 “광주·전남의 매우 중요한 상생의제였는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연구원) 이사장과(원장)당사자는 시·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임명 재고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직격탄을 날렸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 총력

윤시장·이지사 국회 방문

지역 현안사업 예산 건의

예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정현 시장은 오는 30일 직접 국회를 방문, 광주·전남 지역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광주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11월 중에도 한 차례 더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경제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은 지난 23일과 이날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내년 예산 요청 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기반조성(676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90억원) ▲모동형 다단계 변환기 기반 직류송전시스템 개발(147억원) 등 31건 사업에 3119억원의 신규비용 및 증액 사업을 집중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이날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광주·전남출신 국회예결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결위원들을 면담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광양항 24월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원(18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400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2016년 요구액 22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200억원) 등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밀 등 맥류 재배 15% 늘리기로

전남도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밀 등 맥류 재배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부 보리 수매가 중단된 이후 맥류 재배가 급감했으나 지난해 1만9279ha를 재배, 2012년(1만2596ha)보다 53% 늘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보리와 밀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달리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올 가을 맥류 파종 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15% 늘어난 2만2000ha까지 늘리기로 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땅끝호텔·오동재·영산재 결국 수의계약으로 판다

2차 매각 입찰공고 참가자 없어 유찰

전남개발공사 “땅끝호텔은 협상 중”

해남 땅끝 호텔,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영암 영산재 등 전남개발공사의 적자 사업장이 결국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이들 사업장에 대한 2차 매각 입찰공고에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7일 “행정자치부가 땅끝 호텔 등 3곳을 민간이양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한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땅끝호텔의 수의계약 금액은 66억6600

만원, 오동재와 영산재는 각각 271억원과 116억원이다.

최근 수의계약 공고를 낸 땅끝호텔의 경우 한 업체가 관심을 보여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동재와 영산재는 규모가 커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민간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 2차 공고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매각은 시간 문제로, 되도록 이른 시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재는 2만7601㎡ 부지에 사랑채 본관을 포함한 총 7개동 40개실 규모다. 전통혼례청,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 2012년 4월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문을 연 영산재는 1만8579㎡ 부지에 총 7개동 21개실 규모로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혼례청, 연회장,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땅끝 호텔은 90개실 규모로 개발공사가 2010년 민간사업자로부터 35억원을 매입해 4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이들 숙박시설의 적자는 지난해 기준 오동재 8억원, 영산재 8억원, 땅끝 호텔 6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합참차장에 엄현성 중장

군 후반기 장성 인사

정부는 27일 합참차장에 엄현성(57·해사 35기) 현 해군작전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정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참차장 등 군 주요 직위 인사를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장군급 장교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3사 14기)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에는 해군 중장인 엄현성 해군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 엄 신임 합참차장은 제2함대사령관, 국방부 국방운영기획추진관, 해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합참의 서열 2위인 합참차장에 해군을 임명한 것은 이순진 의장이 육군임을 고려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육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차장에는 각각 정연봉(58·육사 38기) 8군단장과 원인철(54·공사 32기) 합참 연습훈련 부장이 임명됐다.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

제3회 빛창공모전

시인이 되다

밝은광주안과가 제3회 시인이되다 빛창공모전 겨울편을 개최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안과 눈모양빌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인 여러분의 감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15. 10. 12(월) ~ 11. 5(목)
발 표 일 : 2015. 11. 9(월) 오후 2시 병원 홈페이지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자유주제

접수방법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시상내용 대 상(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 수 상(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가 작(10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 의 밝은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